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2015. 10. 8.)

학교명	능허대 중학교	이름	김민영
체험 소감			
학교에서 직접체험은 보건환경연구원이었다. 이곳에서도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있었다.			
평소에는 환경이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니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있었고 여러사람들이 환경에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체험중이 대기오염			
물론 측정하는것이 있어서 부상이 특리가서 리사람씩 기록한곳이 그 양을 본리서 측정해보는			
높낮이 낮고저 함양은 해안권이 많다. 내가받은 미세먼지(PM-10)은 0.094 양이 변하게 많았다.			
그래서 평균치100을 넘어서서 위험한수준이라는 내리치 많아서 된다고 하였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이곳에서 겪은 환경에 ^{대하여} 조금 알게되어서 बहुत아였고 환경이			
관심을 사기때문에 시작을 하였다.			
건의 사항			
선배도 잘해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감사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2015. 10 . 8 .)

학교명	능서대중학교	이름	조 아 간
체험 소감			
학교에서 진로체험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오게되었다.			
먼저 홍보영상과 연구원 소개를 들으며 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새로운 것들까지도			
여기서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인지 좀더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담당 선생님의 분야인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만족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내가 만족한 것은 모든 (O3)도 시간 평균이 0.10ppm 이하이다.			
목상에 있는 산소대기오염측정소에서 2~3초 간격으로 20번 측정했는데 변화가 많아서			
꼭 산다보니 대가 아직 연구원이 되기 같은 기분이 들어 새로웠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직접 환경오염에 대해 만족하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앞으로 더 환경오염에 신경써야겠다.			
건의 사항			
지금 활동과도 충분히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였다.			